

# 김지장의 덕화 구화산에서 세계로

## 신라성인 교각스님 열반 1200주 행사 기행

### 중국 구화산 / 차차석부장

중국의 구화산이 지장성인의 성지이며, 신라출신 김교각스님께서 지장보살의 응현으로 중국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근년의 일이다.

여행을 삼재하기 위해 지장사상과 김교각스님에 대한 기초자료를 검토했지만 눈을 끌만한 것이 없었다. 모두가 단편적인 기록이나 시가 내지 전설에 불과했다.

김교각스님에 관한 국내 자료가 전무한 것은 물론이었다. 불교학도의 한사람으로서 김교각스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가을 햇살과 같은 파사르움과 애뜻함이 김교각스님의 종교적 생애 속에서 풍겨나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교각스님을 함배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출발한 것은 9월 3일 오전 9시 35분이었다. 2시간여의 비행 끝에 상해의 무지개다리(虹橋)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항구를 거쳐 김교각스님의 육신보전이 있는 구화산까지 20여시간의 지루한 버스여행을 해야만 했다. 도중에 비친 차창 밖의 풍경은 이국적이기보다 한국의 한적한 시골길을 연상케 했다. 수도가 발달한 절강성의 도작지대를 거쳐 안휘성으로 들어오자 풍나루 밭과 차나무 밭으로 산과 들이 덮여 있었다. 바로 중국의 비단과 녹차의 주산지인 안휘성이었다.

### 장대비속의 축제

오후 4시 김교각스님 열반 1200주년 기념행사가 화성사 앞 뜰에서 열렸다. 비온 직후라 사람이 축축한데도 수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북쪽과 북쪽의 열기 속에 빠져 있었다.

성자순례를 빙자한 관광객의 호기심과 어질픈 기획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투주의 물결, 농악과 고장음악의 앙상블과 같다고 할까. 중국에 대한 나의 관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9월 5일은 김교각스님께서 열반하신지 1천2백주년 되는 날이다. 음력 7월 30일이 재일인데 중국인들은 아직도 음력을 기준으로 재일을 기념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열반제에 참석

하기 위해 3시간에 교각스님의 육신이 모셔져 있다는 육신보전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웅장한 스님들과 함께 육신보전에 들어가 3배를 하고 나니 현안할 수 없는 일은 슬픔이 찾아왔다.

무슨 인연으로 멀고도 먼 이곳 구화산으로 올 수 밖에 없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고행을 통해 고국과 동족에 대한 그리움을 삭인 것은 아닌가.

원래 구화산은 오래된 도교의 성지였다. 구화산의 수호신이 도교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육신보전의 응집력 연구에 삼국지에 나오는 관음상을 수호신으로 모셔 놓은 것 등에서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김교각스님이 오셔서 불교의 지장성지로 바꾸어 놓았다. 도교의 땅에 대한 사상



◇김지장 육신보전 앞에서 9월 5일 거행된 천 2백주년 기념행사에는 세계에서 불자 언어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왼편은 차차석부장)

## 생애와 사상 조명 ... 성역화 한창

성을 불교의 땅에 대한 사상성인 지장사상으로 대체한 것이다. 땅에 대한 사상은 모두 포용적이며, 여성적이다. 역사적으로는 용의 사상에 해당한다.

또한 생명을 포용하고 양육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구화산을 불교로 교화한다는 것은 지장사상이 가장 적합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도 구화산 일대의 불교는 도교의 불교장엄이나 신선사상과 융합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백제궁의 육신보살이나 청암현에 있는 봉계사 대웅보살의 육신보살 등이 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했다. 민중과 융합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열반제가 끝나고 화성사를 참배했다. 화성사는 교각스님께서 재갈절이란 신도와 도용으로 구화산에 세운 최초의 사찰이다. 지금은 매우 퇴락해 있었으며, 구화산 역사박물관이 되어 있었다. 전시된 유물이나 사찰의 법구를 촬영하자 관리인이 못박게 했다.

화성사 앞뜰에는 난방탑자가 있다. 이것은 교각스님의 어머니를 추모하는 탑

- 신라출 김지장의 수행과 덕화가 살아 숨쉬는 구화산. 중국불교의 4대성지
- 중의 하나이자 한국불교의 큰 지장인 구화산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100
- 일간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 기간동안 구화산에서
- 는 김지장보살의 성도 1천 2백년을 기념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현
- 대불교 신문은 창간에 앞서 김지장보살 성도 1천 2백주년 기념행사를 현
- 지주재하고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과 광우스님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이란 설과 신라에서 건너 온 애인을 추모하여 만든 탑이란 설이 있다. 문화혁명 때 탑신은 파괴되고 건립 터만 남아 있었다. 세상의 일은 늘 변하는 것이며, 변하는 것을 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무상설인데도 애뜻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만이 지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퇴락한 사찰의 모습이 나 허허로운 난방탑이 현재의 중국불교 현실이라면 교각스님만이 화성을 지나 부처님의 성으로 들어가고 고달픈 중생들은 화성사 앞뜰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이 슬직한 감회일 것이다.

### 허허로운 난방탑

9월 6일에는 구화산 불학원(2년제 불교대학) 2학기 개학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서둘렀다. 50여명의 재학생이 수학과고 있다고 했다. 연변에서 유학 온 교포 스님이 2명 있어서 품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낡은 시설이나 부족한 교재 등 불학원의 여의치 못한 살림살이를 도서관 내지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느꼈다. 이곳이 잘되어야 중국불교가 회생할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청명이란

스님의 안내를 받았는데 매우 순박했다. 한국불교신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몇몇 안되는 여비를 기부했다.

오후에는 육신보전에서 칠아정전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밤 10시에 육신보전 주지스님의 배려로 11시 30분까지 지장정권을 하면서 절을 했다. 여정에 지친 몸이라 그런가 자책에 있는 지장보살을 볼 수가 없었다. 여래는 응성이나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했으니 분명한 것은 종교적 실천으로 나타내리니라 자위해 보였다. 절해고도와 같은 해발 2천고지의 산정에서 무심히 앉아 계셨을 교각스님을 생각하니 자꾸만 초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날에는 오전 10시부터 김지장에 관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동국대학교 사회과의 조영태교수 발표 논문과 몇몇 논문 이외에는 이렇다할 논문이 없었다.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조박사님의 논문이나 요지만 발표된 박태근박사의 미발표 논문에 많은 기대를 걸기로 해본다.

▲광우스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지장보살의 성도 1천2백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 보기에 좋습니다.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각자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장성인이 중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인덕스님: 전체 불교인구의 약 60%가 지장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중국불교가 문화혁명의 비운을 겪은 것도 입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은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중국불교 회생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광우스님: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은 상구보리 하회중생이라 생각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든 그 종교학적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 한다고 보십니까.

▲인덕스님: 지장보살은 자비스런 서원의 힘으로 지옥중생까지 제도하셨다는 큰 뜻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지요. 지장

### 보살행 일화 많이 남겨

신앙의 의의도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인류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우스님: 지금도 구화산에 오기가 쉽지 않은 데 옛날에는 무척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화산에서 김지장보살께서 수행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든 생각하십시오.

▲인덕스님: 해상교풍토가 발달하여 신라에서 한국까지는 쉽게 올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중국의 중심부인 북경지역은 매우 혼란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신라는 장보고의 활동으로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점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김지장보살께서 구화산에 오셔서 많은 보살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지요.

▲인덕스님: 당시 구화산은 도교의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김교각스님 이후 불교의 지장성지로 바뀐다. 기타 빈민구제나 교화사업 등 보살의 응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바로 부처님과 동일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광우스님: 한국불교와 중국불교의 문화교류에 대한 방각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덕스님: 저는 한국과 중국이 일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지장보살은 한국의 문화, 예술품, 차, 법사, 소나무, 흰개 등을 가지고 중국 구화산에 와서 불법을 배우고, 지장성지를 개척하여 중



인덕 스님 (구화산 방장)

광우 스님 (한국 비구니회 부회장)

국의 민중들을 교화했습니다. 그러한 인연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우스님: 한국불교와 중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덕스님: 중국불교는 문화혁명기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화재를 겪었습니다. 다만 이제 발전 도상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불교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시련을 겪기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불교전래 역사를 볼 때 중국을 통해 한국불교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불교는 서로에게 배움의 자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나 중국불교가 공통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불교에 오르면

### "청정한 계율을 근본으로 엄격히 수행할 때 불교의 내일은 밝습니다"

말고 엄격하게 수행하여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광우스님: 김지장보살의 원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할 생각입니까.

▲인덕스님: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인간상호간의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구화산의 불학원은 <지장보살의정>을 철저히 가르쳐 지장보살의 서원을 계승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한국의 불교신도들은 구화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각스님의 법문을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덕스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국 불교신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스님들의 수행방법과 발전된 생활양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중국불교는 승복의 색깔도 한국스님들과 달리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년에 남방불교의 영향을 받아 전래의 전통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스님들의 엄격한 수행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그만큼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단정치 경제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덕스님: 불교는 대담과 갈등을 없애 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형제요 누이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줄 것입니다. 나아가 권력과 미신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광우스님: 한국불교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사상 안일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요.

▲인덕스님: 무엇보다 우선 청정한 계율을 근본으로 삼으면 장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는 맑은 공기가 풍일되어야 불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엄격한 수행이 전제조건입니다. 사람이 재주가 있으나 덕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며(有才無德無用) 덕이 있으면 재주

### 대담 길들 푸는게 불교

는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有德無才可用) 덕이 있고 재주도 있으면 중용할 수 있습니다.(有德有才可以重用) 불교인들은 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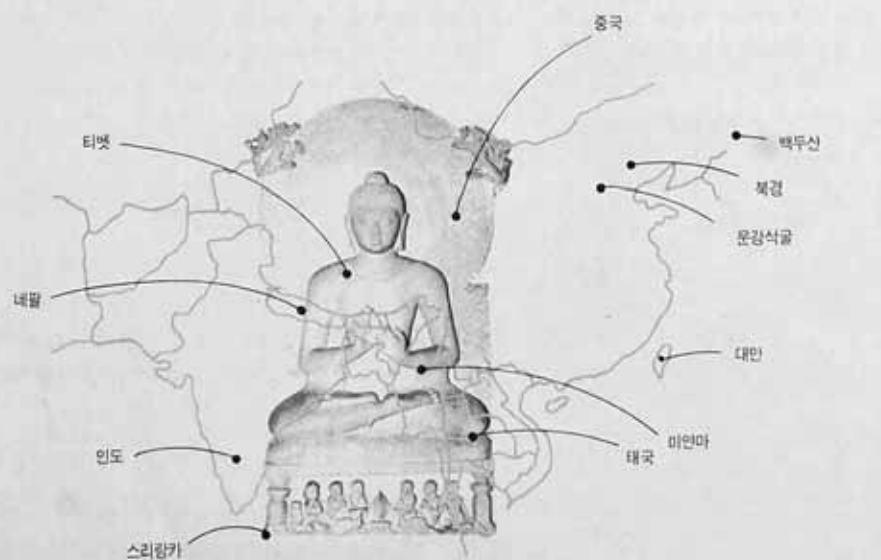
▲광우스님: 불교의 세계화는 어떻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인덕스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행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가 미국에 가 보니 중앙인들처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행이 없는 불교는 생명력이 없지요. 불교는 이론과 수행을 겸비해야 합니다.

▲광우스님: 스님 개인적으로 지니신 불교에 대한 신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덕스님: 불교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정수를 지키고 예불하며 노스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중생제도를 위해 선사리할지라도 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출가 수행자나 불교신자들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배워 그것을 실천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 태국 11일**  
· 동행: 11월 6일, 12월 3일 동행금 165만원  
· 일정: 서울 - 델리 - 사르나트 - 부다가야 - 나란다 - 영취산 - 욕왕사 - 비야살리 - 쿠사나기르 - 소라바스티 - 폴라나 - 카트만두 - 방콕 - 서울

· 수천년 배원 속에 가려진 금단의 신비  
**네팔 · 네팔 11일**  
· 동행: 11월 5일 동행금 230만원  
· 일정: 서울 - 카트만두 - (스자야트부트, 보드넛) - 라사 - 사기제 - 정베 - 리사 - 카트만두 - 서울

· 부처님 치사리 친견  
**미얀마 8일**  
· 동행: 11월 11일, 12월 2일 동행금 108만원  
· 일정: 서울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 - 불탑나무와 - 시가리야 - 땀발라 석굴 - 렌디 - 콜롬보 - 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태국 11일**  
· 동행: 11월 4일, 12월 9일 동행금 140만원  
· 일정: 서울 - 방콕 - 양곤 - 파간 - 만달레이 - 양곤 - 페구 - 양곤 - 방콕 - 서울

· 중국 불교문화의 진수  
**중국 불교유적지 11일**  
· 동행: 11월 4일, 12월 2일 동행금 195만원  
· 일정: 서울 - 상해 - 계림 - 사안 - 낙양(용문석굴) - 장주(소림사) - 태원 - 오대산 - 대흥(운강석굴) - 북경 - 서울

· 4대성지와 불교유적지  
**중국 4대 불교성지 21일**  
· 동행: 11월 18일, 12월 9일 동행금 270만원  
· 일정: 서울 - 상해 - 보타산(견음보살도장) - 항주 - 황산 - 구화산(지장보살도장) - 남경 - 심도 - 예이산 (보현보살도장) 사안 - 낙양(용문석굴) - 장주 - 태원 - 오대산(문수보살도장) - 대흥(운강석굴) - 북경 - 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 기념비, 보로부드로 사원  
**인도 네시아 5일**  
· 동행: 11월 6일, 12월 4일 동행금 85만원  
· 일정: 서울 - 바라(텐가사) - 죽자카르타 (세계최대의 불교 기념비, 보로부드로 사원) - 자카르타 - 서울

· 불광사, 화현  
**대만 5일**  
· 동행: 10월 23일, 11월 27일 동행금 65만원  
· 일정: 서울 - 타이베이 - 고원(불광사) - 화현 - 타이베이 - 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헤초 여행사** 대표전화: (02) 544 - 1533